

구브로를 바라보며, 포이에마로 산다

(사도행전 20:36-21:6)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하는 도중에 크게 울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때 바울은 당시 평균수명으로 볼 때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인생 말년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굳이 에베소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연합교회 대표를 하면서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교회에서 에베소교회로 선교의 축을 이어 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안한 여생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지나가는 길에 섬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열된 이름들은 모두 소아시아 연안에서 빼어난 도시들이었습니다. 고스는 그리스의 섬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의술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의학으로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고스섬을 지나면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적 질병을 다스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도스섬을 지나갑니다. 로도스섬도 그리스의 섬입니다. 특히 웅변과 수사학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실력이면 이 섬에서 웅변

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도스 섬에서 배를 갈아타고 바다라로 갔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해안의 항구도시입니다. 이 섬은 아폴로의 신탁소로 유명해서 항상 수백 척의 상선이 드나드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천막기술로 신규사업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바울에게 유익하지 않은 도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좋은 도시들이어도 바울의 눈에는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세상의 풍요가 하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하니 고스섬에 머물게 하옵소서. 나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로도스섬으로 보내 주옵소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 바다라지역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밀려나고, 십자가는 지워지며, 사명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 많은 유혹과 기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섬들은 지나가는데 바울의 시선을 잘 보십시오.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두로라는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횡단하다가 배 앞에 구브로섬이 나타났고, 바울은 수 많은 섬들 중에 유독 구브로를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앞에 구브로섬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브로섬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첫번째 선교지역이 구브로섬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풍경으로 처리하는데, 구브로만큼은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구브로섬에서 바울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

름을 바꾼 곳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전도팀장이 바나바였는데 구브로에서 바울이 전도팀장으로 선교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일어난 두 가지 변혁은 바울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첫 선교지 구브로를 보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첫 만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자신을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포이에마에게도 구브로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두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보유한 거룩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첫번째 거룩은 구별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것에서 구별되면 밝아집니다. 차갑고 냉정함에서 구별되면 따뜻해집니다. 낡고 지저분한 것에서 구별되면 새로워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 우리는 포이에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내적 여정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들은 소외된 이웃을 만나야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 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가장 그 답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을 가장 그 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그 사람답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외적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브로섬입니다. 우리의 내적여정은 거룩이고, 그 거룩이 외적여정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가장 그 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함께 하시겠습니까?